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

택시정책과장	서인석	2133-2310
택시정책팀장	이기웅	2133-2312
담당자	이병욱	2133-2317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2매

서울시 121일목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조정 시행

-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(9월), 물가대책위원회(10월) 거쳐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
- 11월 21일 택시 요금 신고 수리 완료, 관련규정에 따라 10일 이후 시행
- 심야 할증을 22~04시, 20~40%로 조정하고, 12.1일(목) 오후 10시부터 시행
- 심야 수입 증대와 함께 택시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

서울시는 시민공청회(9월), 서울시의회 의견청취(9월)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(10월) 등 시민·전문가·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하였고,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다.

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,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(목)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·대형(승용)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,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23.2.1일(수) 0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.

-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24~04시에서 22~04시로 2시간 확대되며, 할증률은 20%에서 20%~40%로 조정된다.
 - 40%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~02시에만 적용된다.
- 모범 및 대형(승용)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, 금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22~04시 20%와 시계외 할증 20%가 신규로 적용되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“고시공고”에서 확인할 수 있다.
 -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view/375563
-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“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